

감귤값 호조에 상품외감귤 유통 ‘슬그머니’

서귀포시, 가락시장 불시 단속서 4건·1.2t 적발
감귤조례 위반 전력 선과장 제적발 사례 적잖아

올해 제주시 노지감귤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정한 상품 기준을 벗어나 유통이 금지된 상품외 감귤 출하·유통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상품외감귤을 출하하다 적발됐던 선과장이 다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29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단속을 벌여 4건의 상품외감귤 1.2t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부 선과장의 상품외감귤 도매시장 유통 정황을 포착, 출하 감귤의 유통경로를 추적해 이뤄졌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품질검사 이행 여부 ▷규격별 혼용 여부 ▷상장예외거래 감귤 유통

실태 등도 함께 점검했다.

서귀포시는 감귤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노지감귤 첫 출하일부터 ▷새벽·야간시간대 특별단속(10~11월) ▷읍면동별 선과장 단속 책임제(11~12월) ▷도매시장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시는 2025년산 상품외감귤 유통 등 현재까지 55건(9.1t)의 조례 위반 행위를 적발, 경고없이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다. 또 지속적인 현장 단속과 함께 선과장, 산지유통센터(유통법인)에 대한 감귤 품질 관리 지도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 도매시장 단속은 상품외감귤의 도매시장 유통을 상습적으로 하는 일부 선과장을 중심으로 불시에 진행했다”며 “단속 사례를 보면 감귤 유통 조례를 위반했던 선과장이 다시 위반하



서귀포시는 지난달 29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불시에 상품외감귤 단속을 벌여 4곳 선과장에서 유통한 1.2t을 적발했다.

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곳 선과장 중 1곳도 과거 조례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상품외감귤을 유통하다 1년에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당해년도 적발 기준이어서 선과장의 조례 위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몇 년동안 서귀포시 지역에서 상품외감귤 유통으로 단속된 건수는 2022년산 123건(42t), 2023년산 101건(235t), 2024년산 64건(55t)이다. 2024년산 감귤의 적발 건수가 급감한 것은 감귤 조례를 개정, 상품 기준을 크기 중심에서 맛(당도) 중심으로 바꾸고 착색 기준도 없애는 등 상품 기준을 완화한 영향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서귀포자연휴양림 ‘무장애숲길’ 조성

605m 구간에 보행약자 위한 데크길·쉼터 등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서귀포자연휴양림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최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605m 길이의 무장애 나눔길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5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무장애 나눔길은 누구나 안전하고 숲 체험이 가능토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무장애 데크길과 쉼터, 추락방지턱 등을 갖췄다.

서귀포자연휴양림은 1100도로 중심에 위치해 서귀포와 제주시 어디서나 접근성이 뛰어나고, 한라산 둘레길과도 가까워 무장애 나눔길 조성으로 보행약자층의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2017년부터 총 61억 1600만원(복권기금 36억1100만원,



서귀포자연휴양림에 조성된 무장애숲길.

도비 25억500만원)을 투입해 총 8.6km의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보행 약자의 숲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숲해설·유아숲 교육,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자와 첫 정례회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일 도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자들과의 정례 소통 창구인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소통실무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제1회 협의회는 제주시 구좌읍 묘산봉관광단지 내 회의실에서 열린다. 묘산봉관광단지는 총 422만㎡ 규모로, 현재 투자를 약 37%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장에서 직접 사업 현황을 살펴며 논의하기 위해 이곳을 첫 회의 장소로 선정했다.

회의에는 김양보 제주도 관광과

류국장 등 행정 관계자와 봉개휴양림, 에코랜드, 에일 국제문화복합단지 등 제주시 지역 주요 관광개발사업 대표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회의는 묘산봉관광단지 추진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외 관광 트렌드 강연, 사업자별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현장 의견 공유 순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2개월마다 정례 회의를 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번갈아 순회할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CFI에너지미래관 명칭 공모

제주에너지공사는 3일부터 도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공간으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CFI에너지미래관’의 신규 명칭 공모전을 진행한다

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명칭은 상징성, 창의성, 대중성, 활용성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된다.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1명)이 선정된다.

오소범기자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람사르습지 보전”

제주시·서귀포시, 헝가리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 참가
주민 습지 보전·활용 공유, 전세계 습지도시와 교류

람사르습지도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헝가리에서 열린 ‘제4차 람사르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 참석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습지 보전 사례를 전세계 람사르 습지도시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시협약인증습지도시등지역관리위원회와 서귀포시협약인증습지도시등지역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29일 헝가리 타타사에서 열린 람사르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 참가해 전세계 람사르 습지도시와 교류하고, 지역이 추구하는 습지 보전 방향을 알렸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협약인증습지도시등지역관리위원회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십’ 주제 세션에서 ‘브랜드 인증제와 습지도시를 통한 미래세대 국제교류’ 사례를 발표했다.

제주 동백동산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한 생태보전 활동, 지역 해설가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 청년·청소년 대상 습지 공공외교 운영 등 지역관리위원회가 주도해 온 활동의 의미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보전 모델이 국제사회에서 갖는 가치를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 참가를 계기로 ▷습지도시 간 국제 교류 활성화 ▷제주 청년·시민 대상 습지 교육 확대 ▷동백동산 중심의 생태관광 고도화 ▷국제 공동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여 제주형 습지 보전 모델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서귀포시협약인증습지도시등지역관리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서귀포시 습지교육의 새로운 도전:탐사, 창작 그리고 동행’을 주제로 발표하고, 홍보물도 전시해 서귀포시의 자연환경을 알리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위원회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형 습지 보전 활동을 위해 어린이·성인 대상 습지탐사 활동 등 참여형교육을 진행, 서귀포시의 습지 보전·이용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탐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문학, 공연, 표본 제작 등 다양한 예술 창작활동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미숙기자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 3연속 임명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제2·3대 원장을 역임했던 송민호 원장이 해당 기관의 제4대 원장으로 임명되며 제주 출자·출연기관 최초로 3차례 연속 임명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원장 선임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된 공개모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9월 재공모를 거쳐 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송 원장의 임기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제주도는 송 원장에 대해 “지난 제3대 원장 재임 기간 전국 유일의 지자체 출연 한의약 전문 연구기관을 이끌며 한방의료와 한의약 육성, 연구개발 및 산업 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한의약산업 활성화 유공을 인정했다.

송민호 원장은 “제주 한의약 가치 상승과 연관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오른쪽)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서 임명장을 받고 있다.

“연구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관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원장은 2019년 제주한의약연구원 제2대 원장으로 발탁돼 2022년 4월 임기를 마쳤으며 그해 10월 제3대 원장에 재취임했다. 지난 9월에는 차기 원장 공모 과정에서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연구원 정관상 원장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오소범기자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쉬운 높이조절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고정판 + 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www.dainfine.com